



上海修学旅行初中生来市内学校交流

7月4日，中国上海市文绮中学师生访问了鹿儿岛市，并与西紫原初中一年级约200人进行了交流。在校长与学生



会致欢迎辞和学校介绍之后，各班级代表在体育馆主席台进行了剑玉表演，加深了中国学生对日本游戏的了解。上海学生演唱了歌曲《小星星》，进行了葫芦丝演奏。双方学生通过英语和手势努力的进行了面对面的交流。

此次是上海文绮中学继2015年和2017年连续第三次访问西紫原初中。

向友好城市中国长沙市派遣青少年足球队



7月7日至16日，鹿儿岛市选派了由14人组成的足球代表队，参加了在友好城市长沙市举办的国际友好城市青少年足球赛。这次比赛，除鹿儿岛市选派的足球队之外，加拿大和香港也组队参加。

近年来，鹿儿岛市与长沙市除了开展政府间交流外，青少年交流比较活跃。今年10月，鹿儿岛将举办第13届鹿儿岛亚洲青少年艺术节，届时长沙市将派员参加，并表演中国的传统舞蹈和音乐。欢迎观看！

鹿儿岛举办夏日风物诗“六月灯”



7月15日至16日，在鹿儿岛市中心的照国神社举办了县内最大规模的照国神社六月灯节。在神社参拜道路两旁挤满了各种外卖小吃摊儿，挂满了企业或商业街捐赠的灯笼，热

闹非凡。其中，由留学生等外国人画的大灯也悬挂在其中，上门画的是今年因为大河剧《西乡殿》而人气十足的西乡隆盛。

六月灯，是旧历六月份（公历七月）在县内的各大神社或寺院举办的节日活动。鹿儿岛方言称之为“ROKADDO”，被本地



人所熟知。一进七月，六月灯活动几乎每天晚上都有地方举办，一直持续到月底。无论是夏日乘凉还是体验日本传统文化，六月灯都是一个难得的机会。本活动每年都会举办，欢迎大家来体验。

来自澳大利亚的新国际交流顾问就任

8月3日，新国际交流顾问Nathan Talbot James（澳大利亚维多利亚州）就任。在谈到今后的抱负时，他说，尽量多的与本地市民交流，更多的介绍澳大利亚，为鹿儿岛与澳大利亚的交流做贡献。



锦江湾

消息

Nathan Talbot James来自澳大利亚东南部的维多利亚州，此次是第一次来鹿儿岛。就任后，将在市政府国际交流课工作，主要负责英语口语笔译、外语讲座、澳大利亚文化普及和协助姊妹城市珀斯市交流等。

约14万人参加了纪念明治维新150周年第18届鹿儿岛锦江湾夏夜烟花大会

8月18日，举办了纪念明治维新150周年第18届鹿儿岛锦江湾夏夜烟花大会。作为纪念明治维新150周年的特别策划活动，此次大会比往年更精彩，燃放了九州第一个1尺玉150连发的烟花，当日共有15000发烟花点燃了夜空。当天有大量市民到附近观看，人数达到了14万人。

烟花的燃放背景是世界罕见的活火山樱岛和静谧的锦江湾，夜空中开放的美丽烟火，变幻多端的奇妙图案，美轮美奂，惊艳动人。



在樱岛港和鹿儿岛港开始播放 樱岛轮渡的中文等外语购票及旅游信息

9月13日，在樱岛港和鹿儿岛港可以显示外语购票和旅游信息的电子屏正式开始播放。乘船购票信息有日语、英语、中文和韩语四种语言，旅游信息推介有日语、英语两种语言。

樱岛是世界上罕见的著名活火山，近年来，中国大陆和香港、台湾等华语圈的游客不断增多，随着开始播放外语信息，游客能更容易的理解购票流程，预计会有更多的游客来樱岛观光。



世界罕见的活火山樱岛的魅力在哪

在鹿儿岛市区以东4公里，隔海相望的就是活火山樱岛。被锦江湾环绕的樱岛，也被称为鹿儿岛的象征。海拔1117米（北岳和御岳），面积8平方公里，周长52公里。樱岛诞生于26000年前，大约经历了17次大的火山喷发。现在几乎每天都有小规模喷发。



即使如此，目前仍约有4600人（2015年1月）生活在樱岛山脚下。世界上罕见的活火山喷发的非日常景观，火山与人类的和谐共存，火山脚下的天然温泉，樱岛独有的自然风光，等等，樱岛的魅力无处不在。

有没有想去体验一下活火山樱岛吗？

가고시마시 국제교류어드바이저

영어권 CIR퇴임식 신규CIR취임식



2018년 7월10일 호주출신 국제교류 어드바이저 티아 덕스 씨의 퇴임식이있었다. 가고시마의 자매도시인 호주 퍼스시 출신의 티아 덕스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2년간에 걸쳐 가고시마시 국제교류과에서 근무했다. 티아 덕스 씨는 가고시마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상담, 학교방

문, 출장문화강좌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시민들과의 교류활동에도 힘써왔다.

2018년 8월 3일(금) 에는 티아 덕스씨의 뒤를 이어 호주 벤디고시 출신 국제교류 어드바이저 네이슨 탈봇씨의 취임식이 있었다. 네이슨 탈봇씨는 대학시절 아시아연구 및 일본어를 공부하였으며 2년동안 일본의 대학교에서 유학경험이 있다. 또한, 나고야에서 4년동안 영어학원에 재직한 경험이었다. 이러한 경험의 영향으로 일본과 호주간의 교류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취임식에서 네이슨 탈봇 씨는'1년동안 가고시마에서 많은 분들과 만나 교류를 하고싶다'며 전했다. 위임기간은 2018년7월30일부터 2019년7월29일까지의 1년동안이다. 네이슨 탈봇씨는 앞으로 가고시마시의 국제교류어드바이저로서 학교나 공민광등을 방문하여 호주의 문화를 알리고, 영어강좌를 실시하는등 시민들과의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시민들과의 교류

트래블 인 대구 이벤트 개최



지난 7월 29일 가고시마시 국제 교류재단의 주최로 시민들과의 교류 이벤트가 개최됐다. 이번 이벤트에는 1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총 30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이벤트는 한국의 서울이나 부산과 같이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는 장소 이외의 한국의 관광지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벤트이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대구광역시에 대해서 소개하였으며, 강사를 맡게 된 한국인 국제교류원의 출신지역이 대구이기에 출신자만이 알고있는 지역의 매력과 장소를 알릴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대구는 한국에서는 규모가 큰 도시이지만, 아직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드라마가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 드라마 무대로 대구가 나오는 등 자연스럽게 「대구」라는 지역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한국 여행시에 쓸 수있는 간단한 한국어 회화와 일본에서 대구로 가는 방법, 대구의 인기 관광지와 먹거리등 1시간에 동안 대구 관광정보를 소개했다. 또한 이 날은 여러종류의 한국 전통차를 마시면서 맛을 비교해보고 전통차의 효능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국의 여행정보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까지 소개하게 되어 더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참가자들은 '인터넷으로는 알기어려운 정보에 관해 들을 수 있게 되어 좋았다' '대구에 가보고 싶어졌다' '한국의 전통차를 마셔보는 것은 처음이다'며 이번 이벤트에 대한 감상을 전했다.

칠월칠석(다나바타) 이벤트 개최

지난 8월5일 가고시마시 국제교류재단의 주최로 칠월칠석(다나바타) 이벤트가 열렸다. 이번 이벤트는 보호자도 같이 참가하여 아이들과 같이 게임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진과 같이 견우(히코보시)와 직녀(오리히메)의 사이에 별모양의 스티커를 이용하여 은하수와 같은 형태가 되도록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 칠월칠석의 전설이 전해지는 한국·중국·일본의 칠월칠석의 풍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과는 달리 중국은 '커플의 날'로 불려 이 날에 결혼을 하는 커플

이 많고, 한국에서는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거나 제철과일을 먹는 등 중국, 일본과 다른 방법으로 칠월칠석을 보내고 있다.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단자구에 소원을 적어 사사(대나무 일종)에 장식하는 체험활동을 즐겼다.



한국어 오샤베리카이 이벤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난 8월19일 가고시마시 국제교류재단의 주최로 한국어 오샤베리카이 이벤트가 개최되었다. 오샤베리카이란 이야기기를 나누면서 교류하는 장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이번 이벤트에는 10대에서 6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대로 총 24명이 참가하였다. 한국어 오샤베리카이 이벤트는 평소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사람 혹은 한국에 관심이 많은 일본인을 비롯해 이러한 일본인과 교류를 나누고 싶은 한국인이 모여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뜻 깊은 이벤트이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서로의 공부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자기소개나 한국과 관련하여 서로 질문을 해서 답을 적는 방식으로 완성되는 방고게임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관련한 질문의 내용으로는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된 계기, 한국어 공부방법 좋아하는 한국의 배우 등 이었다. 한국인 국제교류원도 참가자 겸 진행자로서 참가하여 참가자분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고 한국에 대한 정보나 한국어를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이벤트를 계기로 가고시마에 거주하는 한국과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더 한국과 한국어에 대해서 잘 알릴 수 있는지에 관해 생각하게되었다. 참가자들은 '오늘 이벤트처럼 한국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있는 교류의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나 정보를 공유하게되서 너무 기쁘다'며 이벤트에 관한 감상을 전했다.

소방국 어학강좌 실시



지난 8월28일, 29일 이틀에 걸쳐 가고시마시 소방국에서 국제교류 어드바이저에 의한 외국어 강좌가 실시되었다. 국제교류 어드바이저가 각각 영어,한국어,중국어를 맡아 강좌를 진행한다. 세계 공용어로서 가장 필요성이 높은 영어는 50분 동안, 한국어·중국

어는 각각 25분씩 진행되었다. 가고시마시에서는 소방국 직원들이 외국인에게 긴급정보를 받을 경우 대응하기 위함과 다문화 공생의 의식을 높이기위한 목적으로 매년 1회 외국어강좌를 실시하고있다. 강좌에서는 긴급사항시 외국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을 경우를 가정하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고입니까? 어디가 아릅니까?」 등의 실제 상황에 쓰일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표현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소방국 직원들은 직접 발음을 해보거나 강사에게 많은 질문도 하며 적극적으로 강좌에 임했다. 강좌가 끝난후 소방국 직원들은 '이러한 강좌를 통해 외국어를 배울수 있는 기회가 있어 매우 좋은 경험 이되었다. 가고시마에 체재중이거나 여행으로 방문하시는 외국인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배운 표현을 열심히 공부하겠다' 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가고시마시 이벤트

제 8회 가고시마 긴코완 서머나이트 불꽃놀이



일본에서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은 불꽃놀이이다. 매년 여름 일본의 전국 곳곳에서 규모가 크고 작은 불꽃놀이 이벤트가 개최되는데 가고시마에서도 매년 긴코완에서 불꽃놀이 이벤트가 개최된다.

매년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불꽃놀이지만 올해 2018년은 메이지 유신 150주년 기념해이며 예년보다 특별한 기획으로 진행되었기에 가고시마 시민들과 가고시마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여느때보다 특별한 불꽃놀이 이벤트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는 불꽃을 쏘아올릴때에 메이지유신 150주년해의 기념곡인 「유신 dancing´ 가고시마시」도 같이 흘러나와 관객들의 흥을 돋구었다. 올해 18회를 맞이하는 가고시마 긴코완 서머나이트 불꽃놀이는 8월18일 (토) 가고시마항 혼코쿠에서 열렸으며 불꽃 약 1만5000발이 발사됐다. 이벤트 개최전 세레모니는 19:20~19:30까지 불꽃놀이는 19:30~20:40까지 진행되었다.

규슈 최대규모의 불꽃놀이축제라고 불리는 「가고시마 긴코완 서머나이트 불꽃놀이」는 작년 2017년도에 14만명이 참가했으며 쏘아올린 불꽃은 1만5000발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마지막에 발사되는 20발의 대형 불꽃놀이는 낮을 놓고 바라볼 정도로 크고 아름답다. 불꽃놀이 개최장소는 JR가고시마역에서 도보 1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고시마 중앙역에서는 유료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매년 이벤트 당일에는 교통과 인파로 매우 혼잡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보로 이하는 것을 추천한다.

- 관련정보 : <http://hanabi.kankou-kagoshima.jp/>

제13회 가고시마 아시아청소년예술제



가고시마시에서는 국제적인 시야의 확대와 글로벌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가진 청소년의 육성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아시아 각국 및 지역의 청소년과 가고시마의 청소년들이 가고시마시에 모여 예술을 통해 깊은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아시아 청소년 예술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가고시마 아시아 청소년 예술제가 10월20일(토)과 21일(일) 이틀간에 걸쳐 호잔홀과 가고시마 중앙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예술제 1일째인 20일은 호잔홀에서 아시아 각국·각지의 청소년과 가고시마시 청소년의 합창, 합주, 전통음악, 무용 등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참가인원은 단체당 20명(예정)으로 해외에서 11개 단체(예정)가 가고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다. 가고시마시 참가단체로는 와다초등학교등이 예정되어 있다. 예술제 2일째인 21일에는 중앙공원등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먼저 아시안 스테이지에서는 가고시마시와 아시아 출신 청소년은 아시아 각지의 요리 포장마차와 잡화 부스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아시아 체험부스에서는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아시아 체험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가고시마 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참가가 예상된다.

- 관련정보 : <http://www.kiex.jp/asian/about-asian/>

관광관련 정보

가고시마시 관광객 과거최고 달성

작년 가고시마시를 방문한 관광객이 재작년과 비교하여 약 31만명이 증가한 986만5천명으로 과거 최고기록을 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시에서 발표. 숙박 및 당일치기여행 포함) 증가한 원인으로 메이지유신 150주년 기념 관련 홍보와 저가항공회사(LCC)의 신규취항•운항편수증가로 보고있다. 가고시마공항에서는 작년 3월부터 홍콩엑스프레스 항공노선의 운항증가와 작년11월부터 한국 저가항공회사 이스터항공이 가고시마~서울간 노선도 신규취항하였다. 하늘길 뿐만 아니라 가고시마항에 선착하는 크루즈선도 108척으로 과거 최고기록을 달성했다. 관광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항공과 크루즈의 수요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고시마 시내에 숙박한 관광객수도 예년과 비교하여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하는 추세다.(시 관광프로모션과 조사)



외국인 숙박관광객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지역은 홍콩이며 그 뒤를 이어 중국 대만 한국 순으로 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여행객들이 많다. 앞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의 상황으로 보아 가고시마는 물론 일본의 각 지역의 유명 관광지에서 관광객 유치에 관해 힘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고시마 서울간 하늘편 새소식



1990년부터 가고시마~서울간을 취항했던 대한항공이 2019년1월1일부터 3월30일까지 주5편으로 운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한다. 현재까지는 수,금,일의 주 3회였으나 화,토요일까지 주 2회의 운항편이 추가된다. 대한항공뿐만아니라 가고시마와 서울간을 잇는 한국의 저가항공회사(LCC) 이스터항공에서도 새소식이 전해졌다. 다가오는 10월28일부터 주 7일간 매일 가고시마와 서울간을 운항할 것으로 예정이다. 이유는 작년 11월 취항한 이래로 평균 탑승률이 높아 반응이 좋았으며 앞으로도 안정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것. 겨울철이되면 가고시마는 한국의 관광객들에게 골프와 온천으로 수요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며, 두 항공사의 이번 증편을 통해 가고시마에서의 일본인 관광객들도 1박2일정도의 짧은 예정보로도 보다 쉽게 서울을 방문할 수 있게된다. 앞으로도 양 도시간의 관광객들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